

사울의 회심

오늘은 사도 바울이 회심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9 : 3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도행전 9 : 4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사도행전 9 : 5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 : 6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도행전 9 : 20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의 회개에 대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먼저 회개의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개는 마음의 방향 전환이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회개는 헬 metanoia 라는 말인데 meta(後에, after),noes(마음)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자기의 지난 날을 마음으로 뒤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누가 만약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이 없으면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함이 없으면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는 세 가지 과정, 죄를 깨닫는 것, 죄에 대해 마음을 아파하며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즉 방향 전환이 함께 일어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크리스찬이 되는 경우, 즉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것과 같은 회개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옵니다. 불신자였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역사 해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을 만나시고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이것을 칼빈은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able Grace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불가항력적 은혜 즉 불신자였던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사울의 회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사람 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바울이 되기 전의 이름인 사울은, 큰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유대교의 한 분파인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로, 율법을 엄격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파와 함께, 유대인들의 지도적 그룹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통적 유대교의 교리에 일치하지 않는다 하여, 핍박한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율법선생에게 배우고 있을 때는, 30 세 정도 되었을 때이며,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중입니다. 따라서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30 대의 젊은 율법주의자인 사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장 극렬하게 핍박하였습니다.

이렇게 강한 핍박자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이며 전도자가 되었을까요?

보통 사울의 회심에 대해 말할 때 사도행전 9 장에서부터 말하지만, 사울의 회심은 사도행전 7 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언급이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은, 사도 행전 7 장입니다. 사도행전 7 장에는 젊은 집사 스테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스테반 집사를 돌로 쳐죽일 때, 스테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순교하였습니다.

바로 이 때, 청년 사울은 스테반을 돌로 쳐죽이는 일에 증인으로 있었고(행 26), 또 돌로 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58 은 이 사실을 스테반을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 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8:1 에 “사울이 스테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입니다. 이 말은 사울은 스테반 뿐이 아니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죽임을 당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스테반이 순교하는 장면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SNAPSHOT 으로 들어가 있을가요?

성경에는 이것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자기의 믿는 바를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죽으면서도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며, 자기를 돌로 친 자들의 죄 용서를 빌며, 용감히 순교한 스테반의 확신으로부터, 젊은 날의 사울은 깊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사도 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후에 바울로부터 듣고 snapshot 으로 넣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확신 있게 순교하는 스테반과 비교하여, 젊은 율법주의자 사울은 그때 어떤 영적 상태에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일이 있는 후 20 여년 후에, 자신이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의 영적 상태를 로마서 7 장에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을 때, 마음속에 있었던 갈등과 회의를,**

로마서 7:5 에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이 구절에서 ‘육신에 있을 때’ 는 중생하기 전 율법 하에 있을 때를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마음 속에 생기는, 율법을 거스리고자 하는 죄의 정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탐심을 갖지 말아라 하니깐, 타락한 인성 때문에, 탐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거스리고자 하는 탐심이 더 생기더라 말입니다(롬 7:7-8). 살게 할 계명이 살려 주는 것이 아니라, 죄의 정욕을 더 증가 시킨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선 율법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v.10). 사울은 율법에 따라 사는 종교 생활이 곧 구원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는 율법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었고, 따라서 자신의 구원에 항상 갈등과 회의를 있었습니다(v.19).**

스테반의 확신에 찬 순교는, 이런 갈등과 회의를 있었던, 젊은 율법주의자 사울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음이 분명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확신 가운데 죽어 간 스테반에 의해, 사울의 종교 생활과 구원관의 기반이 뿌리채 흔들렸습니다.

스테반의 구원의 확신에 의한 순교는, 갈등과 회의를 있던 사울의 마음속에, 마치 원자폭탄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스테반의 죽음으로 받은 충격은, 사울의 마음에서 분노로서 폭발하였습니다. 이 도를 그냥 놔두었다가는, 온 유대가, 이 도의 불길로 채워지리라는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의 분노와 두려움은, 더욱 더 펄박의 피바람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펄박을 피하여 도피한 기독교인들은 찾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를 의미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홀연히 하늘로서 광채가 저를 둘러 비추며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 : 4 --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펄박하느냐

사도행전 9 : 5 -- 주여 뉘시오이까

--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살기등등한 청년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울이 자신에게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한 종교인입니다. 자신의 종교적 열정으로 불철주야 달음질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왜 죄인으로 나타납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1-3 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 : 1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로마서 10 : 2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좃은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 : 3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로마서 10:1-3 은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유대교 아래 있을 때 바울의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사울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몰랐습니다.

열심을 다해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겨지지 못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시작(요 6:29)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울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자기 의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은 없었습니다.

시작이 잘못되었으니 전체가 다 잘못된 방향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자신이 한일은 죄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여태껏 죄만 저지르고 살았습니다.

네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죄였습니다.

예수님이 멀리 계셔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계셨지만 내 눈이 멀어 못 본 것입니다.

사울은 후에 자신의 회심에 대해 말하기를,

사도행전 26 : 18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케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인하여 앞을 못 보게 된 사울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운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몸부림치며 울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한 후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 : 15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예수님을 만난 후 사울은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큰 자는 작은 자로, 의롭다고 여기던 자기 자신은 죄인
괴수로 바뀌었습니다. 만인 중에 똑똑하다고 여기던 자기 자신이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고전 15:8)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회개한 후 가던 길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사도행전 9:20-22 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 : 20 사울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도행전 9 : 21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도행전 9 : 22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사울은 회개한 후 즉시로 다메섹의 각 회당을 찾아다니며, 예수의 하나님께 아들이심을 전파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려고 온 자가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180도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모든 은혜의 시작입니다.

회개로부터 은혜는 우리 마음에 강같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점점 깊은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은 사람들은 모두 깊은 회개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영혼이 잘됨의 축복, 범사에 잘되는 축복, 건강의 축복이 넘쳐흐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에게 회개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 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

5. Retweet 를 하실 분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home 로 가셔서, 글을 쓰는 Box 에

RT @ 를 type 하신 후 , space 한 후, Retweet 할 내용을 paste 하시면 됨.